

〈특별호〉

## 조세 회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추론을 중심으로\*

김 재 휘†

강 윤 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조세회피의 결정 요인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조세 회피 결정 요인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28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세 대상자의 특성, 개인의 납세 의식과 조세에 대한 지식, 조세 회피 경험, 그리고 동일한 납세 대상이 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 등을 측정하여, 각 측정 변인들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 회피에 있어 유사성 추론, 공정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 및 성별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의 하위 차원에서 다수 추론과 유사성 추론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성 추론은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조세 지식에 대한 설명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의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 자체의 힘이라기보다, 납세자가 지각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활성화된 사회적 추론은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있어 개인적 차원과는 독립적으로 사회적 추론 역시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주제어 : 조세 회피, 사회적 추론, 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 주관적 지식

\* 본 연구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2년 8월 23일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대외심포지움 “조세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양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kinjei@cau.ac.kr

현대 사회에서 조세는 국가 및 사회 공동체를 존립, 유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납세 행동은 공동체 일원인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납세 행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편익(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홍정화, 2004). 그러나 납세 의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와 기업에게 세금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줄이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세금을 덜 내려는 납세자의 본능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한 절세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탈세까지 유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람들은 왜 조세를 회피하려 하는가? 납세 행동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둔 선택행동과는 다르게, 사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 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납세 대상이 되는 대다수의 개인은 납세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행동과 집단 및 사회 전체의 이익이 상충되는 딜레마 상황을 겪게 된다(김지경, 2006). 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세 행동은 개인이 홀로 행하는 것이 아닌, 집단 전체가 공동의 선(共善)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납세는 동일한 선택 상황에 놓인 다수의 타인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행동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협력 행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납세 윤리와 같은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이 개인의 납세 행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공공의 선을 위한 협력 행동에 있어 공정한 것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을 준거로 자신과의 이익 차이가 적게 느껴질 때 공정하다고 간주하며(Fehr & Schmidt, 1999), 조세에 있어 공정성은 단순히 제도, 절차상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그 안의 타인의 협력 정도와 나의 협력 정도를 비

교하는 사회적 공정성(선호) 차원도 포함된다. 즉, 사회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재분배)해야 하는 납세 행동에 있어, 개인은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이 어느 정도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추론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과 추론이 어떠한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납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조세 회피에 대한 규모나 실태,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김철영, 2001; 박춘래, 2001; 조현연, 이신남, 2002; 최화섭, 2008),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향적 요인, 납세 의식 혹은 특정 영향 변수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다(강현수, 남기원, 2001; 박상섭, 2012; 박주철, 이남우, 2003). 또한 조세 회피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사회적 영향력은 단일한 차원으로서 조세회피와의 관계성만을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영향 요인 중 하나로서 규범적인 영향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 자체의 특성으로 볼 때 타인, 사회에 대한 개인의 조망이 납세 행동에 미치는 고유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목적은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을 알아보는 것과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는 개인에 초점을 두고 개인(납세자)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있어, 함께 조세의 대상이 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조망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 일반(다수)에 대한 추론, 그리고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의 납세 행동에 대한 추론이 개인의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납세 행동의 행위자로서의 개인(국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조세 순응을 유도하고 조세 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국가 조세 관련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 납세 행동과 조세 회피

조세는 국가 구성원에게 모두 부여되는 의무로서, 성질상 국가에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세금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한다(김상호, 황이규, 2006).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tax avoidance)란 성실 납세, 조세 순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조세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석기준, 황윤식, 2005). 그러나 조세 회피의 개념은 실정법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가 혹은 학자의 의견에 따라 개념이나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조정환, 1996; 조현연, 이신남, 2002; Herscher, 1978). 조세 회피를 사전상의 순수한 의미로서의 조세 회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탈세와 포함된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조정환, 1996). 다른 한편으로, 합법성 여부와 연결 지어 조세 회피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위법은 아니나 세법 정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세 부담을 줄이는 합법적인 조세회피, 그리고 비합법적인 회피 행위인 탈세(tax evasion)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행위로서 정의하기도 한다(김상호, 김석범, 2004; 이은경, 2000).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과 접근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의 영향 요인을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연구 영역(대상)은 크게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납세 의식에 대한 것이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주로 관심 있게 다루어진 변인은 개인의 소득 수준이다. 조세 자체가 개인의 소득(사유재산)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은 조세 회피에 중요한 변수이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조세 회피 성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Mork, 1975; Srinivasan, 1973), 이와는 달리 소득 수준과 조세 회피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연구도 존재한

다(Spicer & Lundstedt, 1976). 다른 한편으로, 납세 의식에 대한 연구 영역은 주로 조세 제도의 필요성 인식, 공정성 인식 그리고 납세 기관에 대한 인식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의무로서 납세 윤리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조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납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이 조세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조세 회피는 낮아지게 된다(홍학표, 1988). 또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조세 제도의 공정성 인식 역시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조세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이 그렇지 않은 납세자들보다 조세 회피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변용환, 1998; Song & Yarbrough, 1978; Spicer & Becker, 1980). 또한 기관에 대한 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납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태영, 1990; Song & Yarbrough, 1978; Vogel, 1974). 즉, 조세 회피는 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뢰에 영향을 받는다. 더 나아가, 납세자로서의 시민행동 규범을 의미하는 납세 윤리 역시 조세 회피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이다. 납세 윤리는 납세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적인 윤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납세 윤리가 낮을수록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결과가 일반적이다(김동은, 황호찬, 2005; 조현연, 이신남, 2003; Mason & Calvin, 1984). 다른 한편으로, 조세에 대한 지식수준 역시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조세 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적 측면에 대한 이해도는 개인의 납세 행동에 중요한 영향 요인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세법에 대한 개인의 지식수준 혹은 이해도와 같이 주관적인 지식수준을 중심으로 지식이 납세 순응 및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왔다(이종환, 1995; 최임수, 1997; Curatola et al., 1989; Lewis, 1982; Vogel, 1974). 이러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지식이 낮을수록 조

세 회피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거나, 지식이 납세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 사회적 차원에서의 납세 행동의 특성

본질적으로 조세는 국가를 성립,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본래 금전의 형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라 할 수 있다(이우택, 1997). 조세는 특성상 강제적으로 징수되기는 하지만, 국가가 사회 보장 및 여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도록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처럼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이 비용(cost)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납세 행동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공공의 선을 위해 행동하는 국가적 협력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납세 행동은 다수와 함께 관여된 협력 행동임과 동시에, 그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 행동을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 직면하는 비용(cost)과 사회적 이익이 상충되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

기대 가치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행동을 위한 자신의 노력(비용)과 행동 결과의 지각된 효용을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Edwards, 1954). 즉, 매 순간의 선택 행동에 있어 개인은 모든 대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계산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Constant et al, 1994; Edwards, 1954; Rosenberg, 1956).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불확실하면 행동을 보류, 철회하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갈등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행동의 어려움 역시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계산 과정 결과라 할 수 있다(이태연, 1998). 예를 들어, 개인적인 목표 행동의 경우 행위자와 그 행위의 수혜자가

일치되기 때문에 설령 현재 시점에서 그 결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지라도, 최종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비용)이 이후 자신이 받게 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 선을 위한 납세 행동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상충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행위자와 혜택의 수혜자가 불일치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 딜레마 과제에서 사회적 상호성(상호 신뢰)에 대한 개인의 선호

사람들은 혼자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타인의 잠재적인 반응과 행동을 계산하며 의사 결정에 있어 사회적 영향력을 받게 된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개인은 관련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한 추론과 정보는 행동을 수행 할지 여부와 목표에 대한 노력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김재휘, 부수현, 2008; Fiske & Taylor, 2007; Latane, 1979; Kravitz & Martin, 1986).

개인은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간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해석하여 새롭게 구성된 심리적 현실에서 행위를 한다(한규석, 2005).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과 함께 행동할 때 기본적으로 상호성(reciprocity)이 활성화 되게 된다. 상호성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신도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상대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그에 상응한다는 개념이다(Carpenter et al., 2009; Gintis, 2006). 따라서 타인, 집단과의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사회적 관계도식이 어떻게 점화되는지에 따라 이후 개인의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Eiser & Bhavnami, 1974).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근거했을 때,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득이 되는 경우에 접근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리를 멀리하는 특성이 존재한다(Blau, 1964; Kelly &

Thibaut, 1978). 따라서 개인이 상황을 판단할 때 처음에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지만, 갈등 상황을 지각하면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의 예상된 행위에 대한 추론이 작용하여 이러한 판단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elly, Thibaut, 1968). 실제 공공재 게임에서 개인의 행동 패턴을 살펴본 Fischbacher(2001)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 다른 구성원의 협력 정도(수준)에 맞춰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전반적인 균형을 저울질 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 타인이 협력적이라면 자신도 협력하려는 조건부 협력자라 할 수 있다(Messick & Brewer, 1983; Ritchie & McDougall, 1985).

결론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목표 행동에 있어 공정성, 형평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회적 상호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한다(Adams, 1965; Walster et al, 1973). 개인은 사회적 상호성의 선호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한 최종적인 효용(이득)보다 자신의 이득(손실)과 다른 대상들 간의 차이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지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Fehr & Schmidt, 1999), 다수의 타인과 함께 공동의 선을 위해 개인의 비용(cost)을 지불하는 납세 행동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직면한 상황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

#### 사회적 추론과 조세 회피

사람들은 비교 되는 기준에 의해 대상 및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준이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및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Eiser, 1990; Plous, 1993).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타인 및 대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김재휘, 부수현, 2008). 더욱이, 납세 행동과 같이 집단, 국

가 전체를 위해 개인이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행동의 경우, 개인 중심의 의사결정을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개인이 사회 안에서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 추론은 자신이 아닌 타인, 집단에 대한 개인의 관점(예상)이다(김재휘, 부수현, 2010). 즉, 실제 관찰된 사실을 넘어, 타인과 집단에 대해 생각하는 개인의 추론을 의미한다. 예컨대, 특정 이슈나 상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향에 대한 예상, 혹은 자신과 가까운 대상이나 집단에 대한 개인의 예측이나 판단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더 나아가 집단이나 사회 전체의 반응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해 예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추론은 개인의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김재휘, 이희성, 2008).

사회적 영향력이 고려된 조세 회피의 연구는 주로 개인이 지각하는 동료 집단의 추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동료 집단에서 탈세자가 많다고 생각하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납세자들의 동료 집단이 조세에 순응적이지 않다고 지각할 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Vegel, 1974; Witte & Woodbury, 1985). 한편 Kaplan & Reckers(1976)는 개인의 조세 회피 의도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탈세 정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때 다른 사람들의 탈세 행위는 자신의 조세 회피 정당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picer & Lundstedt(1976)는 집단에서의 개인은 설사 그 수가 적을지라도 조세를 회피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됨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납세자가 준거집단에 조세회피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느낄수록 역시 조세회피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준거집단이 조세에 대하여 비순응적일 때 납세자들은 높은 조세회피를 보

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조세 회피 정당화를 위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조세 회피가 납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은 조세 회피의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의 차원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다루고 있을 뿐, 타인과 사회에 대한 조망이 납세 행동에 왜 중요한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누가 이러한 영향력을 더 크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추론을 사회 일반(다수)과 유사한 타인에 대한 추론(유사성 추론)이라는 하위차원으로 나누고, 이러한 개인의 추론(예상)들이 실제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하위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연구 문제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납세의 행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조세 회피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조세 회피에 있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토대로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였다. 즉,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인구 통계학적 변수(성별, 개인의 소득 수준), 납세 의식(납세 윤리, 공정성, 필요성, 기관에 대한 인식)과 조세에 대한 지식(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조세 회피자에 대한 사회적 추론(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 등을 토대로 납세자의 조세 회피 결정요인에 대해 탐색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납세자의 조세 회피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

조세는 사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 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선을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 다수가 협력(참여)해야 하는 상황은 납세 행동을 실천하는 행위자의 수와 자신의 선택(행동)으로 인한 결과(기여)에 대한 지각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납세)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나만 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세금을 걷는 과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여 질 뿐만 아니라, 다른 납세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과 같은 사회적 신뢰가 기반 되었을 때 납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와 선호가 개인에게 공공의 선을 위한 납세 행동에 동참하게 하는 핵심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측, 추론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공동의 목표 행동과 같은 사회적 혹은 갈등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재휘, 부수현, 2009; Fiske & Taylor, 2007; Messick & Brewer, 198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에 초점을 두고, 납세 행동이 자신의 도덕적 가치 뿐만 아니라 타인 및 사회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조망하여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있어, 함께 조세의 대상이 되는 타인(대상)에 대한 사회적 추론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납세자의 사회적 추론은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더 나아가, 사회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 전반의 체계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낄수록, 즉 조세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거나 확신이 없을수록, 개인의 사회적 추론이 활성화 될 수 있다(김재휘, 부수현, 2008;

2010; Ajzen & Fishbein, 1980). 세법을 포함한 조세 제도와 절차는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조세 전반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조세 제도 및 세법의 복잡성이 조세 회피를 하게 되는 직, 간접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조현연, 이신남, 2002; Long, Swingen, 1985; Milliron, 1985; Vogel, 1974; Westat, 1980). 이러한 조세 전반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지식과 그 확실성 수준은 개개인마다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해 주관적인 지식을 낮게 지각하게 되면, 판단(결정)에 대한 확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때 사회 전체, 주변인과 그들의 행동, 결과에 대한 조망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Festinger, 1954; Hamish & Bridges, 2006). 왜냐하면 사회에 대한 조망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수록,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그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Fishbein & Manfredo, 1992; Sassenberg & Postmes, 2004; Kaplan, Reckers & Roark, 1988). 이러한 맥락에서 납세자가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동일한 행동의 대상이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춰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납세자의 납세 윤리에 따라서도 사회적 추론의 활성화는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높은 사람의 경우 타인에 대한 조망과 관계없이 납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도덕적 의무를 낮게 판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추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 문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사회적 추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 수준에 따라 납세자의 사회적 추론은 달라지는가.

## 방 법

###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크게 납세 의식 관련, 조세 지식, 사회적 추론, 조세 회피,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납세 의식은 납세 윤리, 조세의 필요성 인식, 공평성 인식, 기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납세 윤리에 대한 부분으로,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초점을 둔 것이다(김동은, 황호찬, 2005; 황호찬, 1996). 즉, 납세자가 국민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총 4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Blanthome & Kaplan, 2008; 정재을, 2010). 또한 필요성 인식은 조세 제도가 개인과 사회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하여 3문항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공평성 인식은 과세를 포함한 조세 체계와 과세 형평에 대한 것으로서 조세 제도 전반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권영모(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관인식은 납세 기관이 징수한 세금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로서, 기관에 대한 신뢰와 태도를 중심으로 총 4문항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세에 대한 지식은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객관적 지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조세 관련 상식을 토대로 종합 소득세와 부가세, 소득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답이 있는 10개의 문항을 만들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총 5점 만점에서 응답자가 옳게 응답한 점수를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관적 지식은 납세 제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세법에 관한 주관적인 이해도에 대하여 3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인 사회적 추론의 경우, 타인에 대한 추

론에 관한 연구에 기반 하여 총 2개의 하위구성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은 기본적으로 함께 조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추론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대상에 대한 다수(일반), 그리고 유사성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성개념에 따라 각각의 측정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조세 회피에 대한 문항은 조세 회피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조세 회피의 경험을 종속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조세의 특성상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는 누구나 높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것은 실제 조세 회피 행동을 하는 사람에 있어 결정 요인과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가 아닌 실제 조세 회피 경험을 측정한 선행 연구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세 회피 성향을 측정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종속 변인으로서 5개의 측정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세 회피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문 응답에 앞서 개인의 신상과 응답 정보는 연구 목적 외에 결코 외부로 공개, 유출되지

표 1. 주요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변인명	조작적 정의	
납세 의식	납세 윤리	납세의 도덕적 의무
	필요성 인식	조세의 필요성 인식
	공평성 인식	조세 체계 및 과세에 대한 공평성 인식
	기관 인식	납세 기관에 대한 태도
조세 지식	객관적 지식	조세 제도에 대한 객관적 지식수준
	주관적 지식	조세 제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식수준
사회적 추론	다수 추론	조세 회피에 대한 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	조세 회피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 추론
조세 회피	조세 회피 경험	

표 2. 종속변인과 사회적 추론의 세부 측정 문항

변인	측정문항
조세 회피 경험	소득공제가 되지 않은 항목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인 적이 있다 소득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원래 사용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한 적이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교육이나 훈련에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부양 가족을 최대한 많이 신고한 적이 있다
사회적 추론	다수 추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 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여 조세를 회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세를 회피하는 국민의 비율이 많다고 생각한다
	유사성 추론 나의 가족, 친구, 가까운 직장 동료들 중, 조세 회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다 조세 회피자는 나와 매우 다른 성격, 가치관 및 환경을 가진 사람일 것 같다(역)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였다. 앞서 기술한 측정 문항 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들은 기본적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 문항에 동의하거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핵심적인 주요 변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1, 종속변인인 조세 회피와 사회적 추론의 하위 구성개념에 따른 세부 측정 문항은 표 2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핵심적인 목표는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과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일반 납세 대상자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업체에 패널 조사를 의뢰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은 20대 이상 60대 미만의 패널에게 랜덤으로 이메일 배포되었으며, 스크리닝 질문을 통하여 납세 대상자로서 직접적으로 납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이 이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납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총 128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조사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세 회피 경험에 대한 것으로서, 실제 조세를 회피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둘째, 납세 의식으로서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측정하기 위한 납세 윤리에 대한 문항, 조세의 필요성 인식과 조세 제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기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셋째, 정답이 있는 조세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에 대해 측정 하였다. 또한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세 회피자의 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직업, 소득, 학력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결 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적 분석**

본 조사에 응답한 납세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69.3%이고 여성이 30.7%이다. 학력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교 졸업이 72.9%였으며, 그 외 고등학교 졸업이 16.3%,

표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1,281)

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	888	69.3
	여	393	30.7
학력	중졸 이하	7	0.5
	고졸	209	16.3
	대졸	934	72.9
	대학원이상	131	10.2
결혼 상태	기혼	915	71.4
	미혼	324	25.3
	기타	42	3.3

  

변인	구분	빈도	%
부양가족	유	944	73.7
	무	337	26.3
주택소유	유	761	59.4
	무	520	40.6
직종	회사원	828	64.6
	공무원	94	7.3
	사업자/자영업자	254	19.8
	프리랜서	51	4.0
	기타	54	4.2

표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1,281)

(2)

변인	구분	빈도	%	Mean	S · D
연령	25-34세	355	27.7	41.33	8.91
	35-44세	418	32.6		
	45-54세	421	32.9		
	55세 이상	87	6.8		
연평균 개인소득	1,200만원 미만	32	2.5	3960.39	2278.10
	1,200-4,600만원 미만	838	65.4		
	4,600-8,800만원 미만	361	28.2		
	8,800-3억원	49	3.8		
	3억원 이상	1	0.1		

대학원 졸업 이상이 10.2%, 중학교 졸업 이하는 0.5%로 분포해 있다. 결혼 상태에 있어서는 기혼이 71.4%, 미혼이 25.3%, 기타(이혼, 사별)가 3.3%였다. 평균 연령은 41세였으며, 납세자의 연간 개인소득의 평균은 3960만원 이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응답자가 73.7%, 부양가족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6.3%로 나타났으며, 주택 소유 여부의 경우, 소유자가 59.4%, 비소유자가 40.6%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직종은 회사원이 64.6%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자/자영업자가 19.8%, 공무원이 7.3%, 프리랜

서와 기타 응답자가 각각 4%, 4.2%로 나타났다.

표 4는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에 대한 신뢰성 검수를 Cronbach  $\alpha$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검정 결과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거한 후, 신뢰성 있는 항목으로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평균값 계산 결과, 납세 윤리는 3.89, 필요성 인식은 3.94, 공정성 인식은 3.68, 납세 기관에 대한 인식은 3.48, 객관적 지식은 2.55, 주관적 지식은 2.20, 다수 추론은

표 4. 각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문항 신뢰도

변인명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납세 윤리	4	3.89	.79	.83
필요성 인식	3	3.94	.74	.82
공정성 인식	3	3.68	.94	.85
기관 인식	4	3.48	.90	.92
객관적 지식	10	2.55	1.18	해당 없음
주관적 지식	3	2.20	.82	.88
다수 추론	3	3.16	.72	.73
유사성 추론	2	2.55	.81	.77
조세 회피	5	1.83	.90	.87

3.16, 유사성 추론은 2.55, 조세 회피 경험은 1.83으로 확인되었다.

#### 조세회피 결정요인과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

본 연구는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탐색하고,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추론이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개인 소득), 납세 의식(납세 윤리, 필요성 인식, 공평성 인식,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조세에 대한 지식(객관적, 주관적), 그리고 사회적 추론(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 등의 변인을 투입하여 최종적으로 조세 회피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알아보려 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 차원의 결정 요인들보다 사회적 차원의 결정 요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주로 검증된 납세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납세 전반에 대한 의식과 같은 개인적 납세 의식 관련 변수의 효과를 제외할지라도, 납세에 대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추론이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모형의 설명력 변화를 통해 알아보려 하였다. 결론적으로, 종속변인인 조세 회피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고, 모형의 설명력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수 외에 사회적 추론의 고유한 영향력을 알아보려 위 계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모형별 독립변인의 상대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회귀 모형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성별과 개인의 소득 수준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인의 납세 의식과 조세 지식에 대한 것으로서,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납세윤리), 조세 제도의

필요성과 공평성 인식, 기관에 대한 인식 및 조세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조세의 지식수준에 대해 검증하였다. 마지막 단계의 회귀 모형에서는 다수 및 유사성 추론을 투입함으로써 앞서 모든 변인들의 효과를 감안한 사회적 추론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단계 모형에서는 오직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개인의 소득 수준), 2단계 모형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후에 납세 의식(납세자의 도덕적 의식, 조세에 대한 필요성과 공평성 인식, 기관에 대한 인식)과 조세 지식(객관적, 주관적)이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모형에서는 모든 독립 변인들이 투입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사회적 추론의 하위 차원들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되었다. 모든 단계의 회귀모형에서 공통적인 종속 변인은 조세 회피 경험이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 회귀모형의  $R^2$  값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R^2 = .009$ ,  $F = 6.085$ ,  $p < .01$ ), 구체적으로 성별의  $\beta$  값은  $-.089$  ( $t = -3.040$ ,  $p < .01$ ), 개인 소득의  $\beta$  값은  $.019$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2단계 회귀모형의 경우에도  $R^2$ 이  $.155$ 으로 투입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 = 29.124$ ,  $p < .001$ ). 특히 1단계 모형에서 2단계 모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즉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납세 의식(납세 윤리, 조세에 대한 필요성과 공평성, 기관 인식)과 조세 지식(객관적, 주관적) 등이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됨에 따라 변화된 설명량( $\Delta R^2$ )은  $.145$ 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 = 36.466$ ,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소득 수준과는 차별적으로 조세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이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2단계에서 납세 윤리의  $\beta$  값이  $-.230$ 으로 높았으며( $t = -8.321$ ,  $p < .001$ ), 그 다음으로 공평성 인식의  $\beta$  값은  $-.218$ ( $t = -6.721$ ,

$p < .001$ )로 확인되었다. 또한 납세 기관 인식에 대한  $\beta$ 값은  $-.115(t = -3.591, p < .001)$ , 필요성 인식에 대한  $\beta$ 값은  $-.109(t = -3.802, p < .001)$ , 성별의  $\beta$ 값은  $-.070(t = -2.542, p < .05)$ , 그리고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의  $\beta$ 값은  $-.064(t = -2.384, p < .001)$ 으로 확인되었으나 객관적 지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서, 다른 모든 독립변인을 투입한 후 사회적 추론을 투입했을 때, 회귀 모형의  $R^2$ 이  $.204(F = 32.464, p < .001)$ 으로 유의했을 뿐 아니라, 2단계 모형에서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변화된 설명량( $\Delta R^2$ )은  $.049$ 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 = 38.886, p < .001$ ). 따라서 다른 모든 독립변인과 별개로, 조세 회피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추론이 조세 회피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입된 모든 독립변인

중에서 조세 회피자에 대한 유사성 추론의  $\beta$ 값이  $.203$ 로 가장 높았으며( $t = 7.266, p < .001$ ), 그 다음으로 조세 제도의 공정성 인식의  $\beta$ 값이  $-.198(t = -6.261, p < .001)$ , 납세 윤리의  $\beta$ 값이  $-.162(t = -5.682, p < .001)$ , 기관에 대한 인식의  $\beta$ 값이  $-.129(t = -4.128, p < .001)$ , 필요성 인식의  $\beta$ 값이  $-.098(t = -3.492, p < .001)$ 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수 추론의  $\beta$ 값은  $.082(t = 3.147, p < .01)$ ,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의  $\beta$ 값이  $-.071(t = -2.721, p < .01)$ , 성별에 대한  $\beta$ 값은  $-.056(t = -2.069, p < .05)$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은 총 8개의 요인임이 나타났다. 또한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세회피자와의 유사성 추론, 조세 제도의 공정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조세의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 성별 순으로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 회피

표 5.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 분석

변인명	1단계	2단계	3단계	
	coef.( $\beta$ )			
인구통계학 변수	성별	-.089**	-.070*	-.054*
	개인의 소득 수준	.019	.032	.019
납세 의식 및 조세 지식	납세 윤리		-.230***	-.162***
	필요성 인식		-.109***	-.099***
	공평성 인식		-.218***	-.206***
	기관 인식		-.115***	-.133***
	객관적 지식		.019	.002
	주관적 지식		-.064*	-.070**
사회적 추론	다수 추론			.078**
	유사성 추론			.212***
N	1281	1281	1281	
결정계수( $R^2$ )	.009**	.155***	.203***	
수정된 결정계수( $R^2$ )	.008**	.149***	.197***	

\* $p < .05$ , \*\* $p < .01$ , \*\*\* $p < .001$

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 낮을수록, 조세 제도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그리고 조세제도의 공정성 인식이 낮을수록, 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일수록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낮을수록 조세 회피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추론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조세 회피가 증가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조세 회피가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유사성 추론, 공정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조세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 성별)을 확인 하였으며, 변인이 투입된 단계별 변화된 설명량과 그 유의도에 근거했을 때, 사회적 추론이 인구통계학적 변인, 납세 의식적 변인 및 조세에 대한 지식수준과는 차별적으로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추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깝고 유사한 대상에 대한 추론이 조세 회피에 상대적으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사성 추론은 조세 제도의 공정성이나 필요성 인식, 납세 윤리보다도 더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에 따른 사회적 추론의 차이

연구문제 1, 2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추론이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사회적 추론(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이 더 많이 활성화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납세자의 납세 순응을 장려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상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과 납세 윤리에 따라 사회적 추론(다수 추론, 유사성 추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다수 추론에 있어,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납세 윤리는 다수 추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주관적 지식수준은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 = -.065, p < .05$ ). 즉, 납세자의 주관적 지식수준이 낮을수록 다수 추론이 더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주관적 지식수준을 빈도분포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지식수준이 낮은 집단의 평균이 2.95( $SD = .83$ )로 높은 집단의 평균 2.84( $SD = .72$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t = 2.30, p < .05$ ).

그 다음으로 유사성 추론에 있어,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지식수준과 납세 윤리 모두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납세 윤리는 유사성 추론에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beta = -.338, p < .001$ ). 즉, 납세 윤리가 낮은 사람들일수록 유사성 추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관적 지식의 경우, 주관적 지식이 높아질수록 유사성 추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078, p < .01$ ). 또한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를 빈도분포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주관적 지식의 경우, 주관적 지식수준이 높은 집단의 평균이 2.62( $SD = .75$ )로 낮은 집단의 평균 2.48( $SD = .86$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 = -3.10, p < .01$ ). 또한 납세 윤리의 경우, 납세 윤리가 낮은 집단의 평균이 2.80( $SD = .72$ )으로 높

표 6. 사회적 추론에 대한 주관적 지식수준과 납세 윤리의 회귀 분석

	독립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B	표준오차	$\beta$	
다수 추론	주관적 지식	-.062	.027	-.065	-2.31*
	납세 윤리	-.034	.028	-.034	-1.22
$R^2(\text{adj. } R^2)=.005(.003), F=3.109, p<.05$					
유사성 추론	주관적 지식	.077	.026	.078	2.951**
	납세 윤리	-.345	.027	-.338	-12.827***
$R^2(\text{adj. } R^2)=.127(.125), F=92.626, p<.001$					

\*\* $p<.01$ , \*\*\* $p<.001$

은 집단의 평균 2.36(SD=.8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10.05, p<.001$ ). 즉, 주관적 지식은 높은 집단이, 납세 윤리는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조세 회피의 유사성 추론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납세 행동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해 자신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납세 행동은 납세 윤리나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행동 반응 추론과 같은 사회적 추론이 개인의 납세 행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세금을 덜 내려는 개인(납세자)의 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들을 알아보고, 납세 행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에 대한 다양한 추론이 조세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조세 회피의 결정 요인은 총 8개로 확인 되었으며, 조세 회피자에 대한 유사성 추론, 조세의 공정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에 대한 인식, 조세 제도의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조세의 주관적 지식수준, 성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세회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 윤리가 낮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공정성 인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조세 회피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세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는 별개로 조세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지각할수록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사회에서 많은 구성원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추론할수록, 나와 가깝고 유사한 대상이 조세 회피를 한다고 추론할수록 납세자의 조세 회피 행동이 높아졌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사회적 추론이 조세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추론에 대한 변인을 투입했을 때 모형 전체의 설명량이 높아지는 것이 유의했다. 즉, 개인적 차원의 변인과는 별개로 조세 회피에 대한 타인과 사회의 반응을 추론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 회피에 영향이 있음이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적 추론이 조세 회피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대상이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이 활성화되는지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낮을수록 조세 회피를 하는 다수에 대한 추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유사성 추론의 경우, 납세 윤리가 낮을수록, 반면 주관적 지식이 높을수록 자신과 가깝고 유사한 사람들에 대한 추론이 더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조세에 대한 주관적 지식이 낮은 사람들이 유사성 추론보다 조세 회피에 대한 다수 추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 향후 조세 회피를 막고 납세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납세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메시지 소구를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조세 회피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사회 일반과 유사한 타인에 대한 추론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사성 추론을 측정함에 있어 자신과 가깝고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유사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서 응답하게 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환경적 유사성(연소득, 재정적, 사회적 계층 등), 가치관의 유사성 등으로 나누어서 세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추론의 영향이 특히 납세자의 주관적 지식과 납세 윤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세 회피에서 사회적 추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지만 이전 분석에서의 독립 변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 추론에 있어 주관적 지식수준의 집단 평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사회적 추론을 활용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험 세팅을 통해 설득 대상과 메시지 제시 방법에 대한 검증이 다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함에 있어 총 8개의 변인(유사성 추론, 공정성 인식, 납세 윤리, 기관 인식, 필요성 인식, 다수 추론, 주관적 지식, 성별)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혔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세 지식에 대한 부분을 검증한 것으로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을 나누어 조세 회피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관적 지식에 대해 세법 복잡성 인식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조세에 대한 실제 납세자의 객관적 지식과는 별개로 주관적 지식(이해, 확신)이 조세 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이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조세 회피에 있어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납세자의 조세 회피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납세 의식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 행동이 가지는 사회적 차원의 영향력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납세 행동은 국가 전체의 다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의 특성이 집단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며, 자신의 포기한 이득으로 인한 비용(cost)과 동일한 선택 상황에 놓인 타인의 행동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전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식과 그들이 나와 유사한 사람일 것이라는 추론은 조세 회피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납세자의 조세 회피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설득 대상(target)별로 그들과 환경적 혹은 가치관 등이 유사한 다른 납세 대상자들이 조세를 회피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거나 인식을 심어줄 때 조세 회피가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추론을 활용한 메시지에 더 영향을 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추론(다수 추론, 유사성추론)이 조세 회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초점을 두고, 좀 더 구체적인 납세자의 특성들이 사회적 추론과 그 영향력에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납세 행동에 대한 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조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추론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나, 납세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향후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현수, 남기원 (2001). 납세자의 세제인지도와 성실납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공주영상정보 대학 학술저널, 8, 73-95.
- 권영모 (1995). 조세공평성 인식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6, 189-210.
- 김동은, 황호찬 (2005). 개인성향 및 납세환경에 대한 태도가 납세윤리와 납세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4(1), 27-48.
- 김상호, 김석범 (2004). 조세회피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10, 101-117.
- 김상호, 황이규 (2006). 사회심리적 특성과 세무적 특성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14, 249-270.
- 김재휘, 부수현 (2008). 주변 타인이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구매만족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81, 49-75.
- 김재휘, 부수현 (2010). 미디어 정보에 의한 사회적 추론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162-188.
- 김재휘, 이희성 (2008). 사회적 추론이 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다수가 시칭할 것이라는 추론의 영향, 광고학연구, 19(4), 43-56.
- 김철영 (2001). 납세자의 탈세선택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4, 53-65.
- 김지경 (2004).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딜레마상황에서 협동행동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3), 75-89.
- 박상섭 (2012). 세무조사 적발 위험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회계학 연구, 37(3), 41-80.
- 박주철, 이남우 (2003). 소득 원천이 세율과 납세 순응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세무학연구, 20(3), 109-132.
- 박춘래 (2001). 소득세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0(2), 75-104.
- 변용환 (1998). 납세자의 조세관. 세무학연구, 11, 221-264.
- 석기준, 황윤식 (2005). 납세자의 조세회피 선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26, 195-219.
- 이우택 (2007). 조세법 강의, 박영사.
- 이은경 (2000). 조세순응연구에 관한 고찰. 회계학 연구, 24(3), 211-236.
- 이종환 (1995). 조세지식수준이 납세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1), 25-48.
- 전태영 (1990).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재을 (2010).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 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1(1), 137-166.
- 조정환 (1996). 중소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8, 243-275.
- 조현연, 이신남 (2002).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 연구, 18, 185-209.
- 최임수 (1997). 납세자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화섭 (2008).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22, 171-196.
- 황호찬 (1998). 규칙윤리와 덕윤리의 통합. 경영학 연구, 27(2), 343-359.



- 홍정화 (2004). 조세회피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재무와회계정보저널*, 4(2), 53-81.
- 홍학표 (1994). 납세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7(3), 901-914.
- Adams, S. J.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Blanthome, C., & Kaplan, S. (2008). An egocentric model of the relations among the opportunity to underreport, social norms, ethical beliefs, and underreporting behavior.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33, 684-703.
-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Wiley, New York.
- Constant, D., Kiesler, S., & Sproull, L. (1994). What's Mine is Ours, or Is it? A Study of Attitudes about Information Sharing.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5(4), 400-421.
- Edwards, W. (1954).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51(4), 380-417.
- Eiser, J. R. , & Bhavnani, K. K. (1974). The effects of situational meaning on the behavior of subjects in the Prisoner's Dilemma Gam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93-97.
- Fehr, E., & Schmidt, K. A. (1999).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3), 817-68.
- Fischbacher, U., Gächter, S & Fehr, E. (2001). Are people conditionally cooperative? evidence from a public goods experiment. *Economics Letters*, 71, 397-404.
- Gintis, H. (2000). Strong reciprocity and human sociality. *Journal of the Theoretical Biology*, 206, 169-179.
- Jackson, J. M., & Williams, K. D. (1985). Social loafing on difficult tasks: Working collectively can improve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4), 937-942.
- Latane, Williams & Harkins. S. (1979). Many hands make light the work: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6), 822-832.
- Long, J. E., & Swingen, J. (1985).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quity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Fall, 19-33.
- Mason, R., & Calvin, L. D. (1984). Public Confidence and Admitted Tax Evasion, *National Tax Journal*, 37, 489-496.
- Mork, K. N. (1975). Income Tax Evasion: Some Empirical Evidence, *Public Finance*, 70-76.
- Milliron, V. C. (1985)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3(2), 794-816.
- Kelley, H. H., & Thibaut, W. (1978). Interpersonal relations: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ew York: John Wiley.
- Kravitz, D. A., & Martin, B. (1986). Ringelmann rediscovered. The original arti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36-941.
- Rosenberg, M. J. (1956), Cognitive Structure and Attitudinal Affec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3, 367-72.
- Songh, Y., & Yarbrough, T. E. (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September-October, 442-457.
- Spicer, M. W., & Becker, L. A. (1980). Fiscal Inequity and Tax Eva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National Tax Journal*, 33(1), 171-175.
- Srinivasan, T. N. (1973). Tax Evasion: A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 339-346.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e. *National Tax Journal*, 499-513.
- Witte, A. D., & Woodbury, D. F. (1985). The Effect of Tax Laws and Tax Administration 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al Tax Journal*,  
38(1), 1-13.

1 차원고접수 : 2013. 06. 30.  
수정원고접수 : 2013. 08. 10.  
최종게재결정 : 2013. 08. 23.

〈Special Section〉

## **A Study on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Focusing on Social Inference**

**Jae Hwi Kim**

**Yoon Hee Kang**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with emphasis on the role of social inference. Total of 1281 participants' data was gathered and analyzed with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using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al information, knowledge level, past experience(s) of tax avoidance, social inference, and etc. The results suggest that inference within in-group, perceived equity, tax ethics, attitude of tax organization, perceived necessity, majority inference, subjective knowledge, and sex were crucial factors when it comes to tax avoidance. Specifically, both of 'majority inference' that many people are doing the tax avoidance and 'similarity inference' that how the tax evaders are similar to them influenced the tax avoidance under categories of social inference. In more detail, the social inference that 'similar people are doing the tax avoidance'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 that explained the phenomenon of tax avoidance more than any other factors that had investigated in the previous studies. Moreover, these social inferences showed different scores depending on participants' subjective knowledge and tax ethics. This suggests that what determines the tax avoidance does not lie in the individual aspects as demographics, or tax ethics but in the social aspects that inference of other people and the society plays important role.

*Key words* : Tax avoidance, Social inference, Majority inference, Similarity inference, Subjective knowledge